

예수께 나아가는 인생

열왕기상 19:13-21, 히브리서 13:9-21

최정웅 목사님

“주님, 오늘도 주의 음성 들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는 마음과 귀를 준비하였나이다. 열려진 가슴에 주의 말씀을 심으시고, 썩어 나고 썩 피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만 전하게 하옵소서.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히브리서를 묵상해왔는데, 오늘은 마지막 묵상을 하도록 하겠다. 주제를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잡았다.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고, 이 복음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결단을 하고 히브리서를 마치기를 원한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결단이다. 먼저 묵상할 것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19세기 말, 영국의 명문 케임브리지 대학에, 아주 뛰어난 일곱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 성적도 뛰어났지만, 영국의 국민인 크리켓 선수로 유명했고, 육상에도 뛰어난 선수들이었다. 그런데 전도자 무디가 영국에 와서 전도집회를 하는데, 이 일곱 학생이 비웃으려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놀랍게도 복음을 받게 되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두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학교에서도 놀라고 친구들도 놀라고, 영국이 깜짝 놀랐다. 저런 인재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니깐, 19세기에는 영계에 위대한 거성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때 일어난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중국, 티벳,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갔다. 이 사람들을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부른다. 알렉산더 맥케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프리카 우간다로 파송받아 가게 되었다. 파송받을 때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지금 여덟 명이 파송받지만, 6개월 중에는 우리 중 한 명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식이 들린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은 사람을 대신할 선교사를 보내 주십시오.” 정말 1년 후에는 여덟 명 중에 다섯 명이 죽었다. 2년 후에는 맥케이가 선교사 한 명을 남기고 다 죽었다. 14년 후에 맥케이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40세의 나이로 순직했다. 그러나 그때, 약 6만 5천 명의 제자가 세워져 있었다. 이들의 헌신과 충성으로 전 세계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국 교회에도 귀중한 전통이 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지만, 성경 한 권을 던지고 참수를 당하여 순교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서 시작했다. 우리는 그 은덕으로 복음을 누리게 되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복음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긴 몇 사람은 한국 교회를 지키고 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는가?

1.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본문 13:9에 보니까 다른 교훈이 있다고 했다.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다른 교훈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을 말한다. 지금도 다른 교훈이 많이 있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교훈들이 많이 있다. 우리 램넛들은 세속의 것이 좋다고 하는 육신의 교훈을 학교에서 대부분 배우고 있다.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땅의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2)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소중한 것도 있다. 히13:14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올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선교사님들도, 한국 교회를 살린 선조들도 이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3)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는가? 무엇을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결심해야 되겠는가?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골3:1-2에서 바울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일제는 신사참배를 안 하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기도 했다. 한 번 가서 참배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회유했다. 그렇게 하면서, 순사, 군인들을 배치해 놓고 협박하고 공갈했다. 땅의 것이 소중하다, 육신의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총회장이 흥탁기라는 분이였다. 이름을 거명해서 미안하지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니까 괜찮다 하고 결의를 한 것이다. 그것이 장로회 제27회 총회였다.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3분의 1 정도 진행되었을 때 그런 참혹한 일이 한국 기독교사에 있었던 것이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남았다. 이완용을 기억할 때마다 매국노라고 욕하지 않나? 그런 것처럼 이분의 이름을 추하게 기억하게 되었다. 반대로, 땅의 것 대신에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찾았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있다. 그들의 이름도 찬란하게 우리 역사에 남아있다. 후대를 살리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땅의 것을 찾는 선택인지, 위의 것을 찾는 선택인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령인도받는 한 주간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목함지뢰가 터지고 우리 젊은이가 발목을 잃었는데, 무릎 밑이 다 날아가 버렸다. 서로 포를 쏘면서 전쟁 직전까지 갔다. 북한은 준전시 상황을 선포했고 우리는 진돗개 2를 발령했다. 그때 젊은이 몇 명이, 그 주간에 전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대하면 자유 아닌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전쟁이 터질 일촉즉발의 위험이 오니까, ‘나는 제대하지 않고 전우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있겠다’ 하고 제대 연기 신청을 한 것이다. 이번에 TV에 나왔는데 얼굴도 잘 생겼더라. (웃음) 그 기간 중 제대를 유보한 청년이 127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어느 기업의 회장이, ‘이렇게 나라에 충성하는 청년들은, 원하기만 하면 우리 회사에서 특채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그런 것을 기대한 게 아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다리를 잃은 군인들에게 좋은 전동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는 매일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떤 결단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새롭게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란다.

2.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번째다. 만약 영원한 것을 선택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방법이다. 본문에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1) 히13:12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함을 얻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태희 프로그, 지금 KPGA투어 매일업업 클래식 골프대회의 마지막 4라운드를 치르고 있다. 3라운드까지 선두였다. 오늘 마지막 라운드를 치러야 한다.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힘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해 내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시다. 흑암을 쫓아라. 주의 천사의 도움을 받아라.” 오늘은 1등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기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 복음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최고의 방법은 믿음이다.

① 우리 성도들과 램넛들은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항상 누리려 한다.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했지 않나. “네가 예수님 영접했냐. 네 안에 예수님 계시느냐. 그러면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공부를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 하면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우시는데 걱정할 것 없다. 그런데 해낸 것이다. 우리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란다. 내 안에 복음 있는 것이 감사로 누리려야 하고,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하고 완전하며,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 방법을 참사랑 가족들이 소유하기를 축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일을 해 나갈 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②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베드로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담대히 선포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인간은 사단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존재는 어떤 것도 없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다. 골리앗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저주했다. 다윗은 깨달았다. “그러면 너는 죽었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간다.” 돌맹이 하나로 꺾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그 이름으로 공부하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면 시대는 멸망에 빠진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 땅에 다가오는 재앙, 전 세계에 다가오는 저주, 모든 개인을 실패시키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복음의 유일성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축원한다.

(2) 두 번째 방법이 있다. 히13:13에, “그러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 갈보리산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다.

① 눅9:23에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이 치욕이라고 설명했다.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이다. 왜 그런가? 십자가 자체가 그 시대에는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었다. 그래서 고전1:23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행복한 것이라고 알고 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다.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려면 십자가의 이픔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을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승리, 영광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그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지불한 대가는 사람들이 모른다. 얼마나 값어치있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②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성문 밖으로 가라고 했다. 주님이 가신 길이

다. 그 길을 따라서 현장으로 가려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탈출하라고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 피난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뜻이다. 주님이 대답했다.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쳐 나온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간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다시 일어나 로마로 돌아갔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질문해 보시기 바란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캠프 현장으로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3) 세 번째 방법이 나온다. 히13:15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날마다 고생길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찬송의 길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 입술에서 실제로 매일 찬송이 있기를 바란다. 매일 복음이 입에서 선포되고, 매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타나는 축복 있기를 바란다. 이번 주간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찬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한다. 하모니카를 들고 나왔으면 연주를 했을 텐데 안 가지고 나왔다. (웃음) 그냥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다. 정말 주의 음성이 그렇다. 그분이 정말 나의 생명이요 소망이다.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그분만이 내가 따라갈 분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리 되기를 바란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히13:13에 보니까,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은, 바로 예수께 나아가는 인생이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께 나아가는 인생에는, 반드시 보장과 축복이 있다. 욕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보았다.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의 삶에서 보았다. 21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했다. 복음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며 보장이자. 그리고, ‘자기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특별히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록한 무리의 반열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바란다. 황공하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번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누리는 전도자의 삶,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삶,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현장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램넛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한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시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8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중에서 한 마디라도 내 가슴에 박힐 말씀이 있다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내 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고, 복음 때문에 사업하고, 복음 증거 때문에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